

신혼부부 주거안정 투트랙 강화

익산시, '공공·민간' 보증금 무이자·주택금융지원... 신규주택까지 선택 폭 넓혀

익산시가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걱정을 없애기 위해 '공공·민간' 투트랙 지원으로 주거안정망을 더욱 촘촘히 만든다.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공공임대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증금 지원 자격의 소폭기준 하향을 없애고, 민간 주택시장에는 3억 이하 익산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에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보증금 걱정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로 지원한다.

지역 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무이자로 용자해준다.

지원기간은 최초 2년 기본 2회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최대 8년까지, 2자녀 이상은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 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판

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지참하여, 오는 5월 4일까지 익산시청 주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민간 주택시장이 활성화된 익산 지역에 신혼부부 청년들이 적국 유입될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안정 금융정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무주택 신혼부부·청년들에게 신규 아파트까지 주거 선택지의 폭을 넓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임대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3.0% 이자를 지원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지역 기업, 기관, 봉사단체가 함께하는 복지시설 나눔 행사를 펼치며 나눔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열정적·헌신적 노고에 감사를”

군산시자봉센터·봉사단체, 나눔경영 사회공헌활동 펼쳐

군산지역 기업, 기관, 봉사단체가 함께하는 복지시설 나눔 행사를 펼치며 나눔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8일 관내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 주관으로 관내 기업과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2023 나눔경영 릴레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나눔경영에 뜻이 있는 7개 기업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관내 시설 8곳(신아원, 더숨99지원센터, 나포갈뿔공동체, 일백원, 삼성애육원, 구세군후생학원, 신광모자원, 신광모자지립원)을 대상으로 전문 재능나눔 서비스를 제공했다.

'나눔경영 사회공헌활동'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봉사단체가 뜻을 모아 생활시설 입소자들에게 전문 재능나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에 참여한 5개 기업 △한화에너지

지(주) 군산공항 △한국항공공사 군산공항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주)태랑 △하이트진료(주)전주지점 군산영업소에서는 8개 시설에 630만원 상당의 쌀과 생필품 등을 지원했으며 관내 의료시설 2곳△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은 신아원과 나포갈뿔공동체에서 골밀도·인버디검사, 콜레스테롤·혈압·당뇨측정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더불어 자원봉사단체인 다뜻다뜻봉사단(회장 임철혁), 디딤돌봉사단(회장 전해정), 소담봉사단(회장 안윤선), 룰루랄라봉사단도 원예치료, 구내식당 배식, 가족공예, 장구놀이 공연 등으로 아름다운 손길을 더해 따뜻한 나눔의 한마당이 됐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 황진 이사장은 "나눔경영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과 자원봉사자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대, 싱하이밍 중국대사 명예박사학위 수여

양국 학술·문화·고등교육 교류 기여...군산대 우수인재 양성정책 적극 협력

국립군산대학교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게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학위수여식은 19일 군산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진행되었고, 수여식에는 이장호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탄원진 중국대사부인 아이홍거 교육공사, 다이린 정무과장 및 군산대학교 교직원, 중국인 유학생 재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양국 고등교육 발전과 새만금환경협단지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북과 군산지역 발전에 기여했으며, 양국 학술·문화·고등교육 교류에도 관심을 가져, 군산대학교의 우수인재 양성정책에 적극 협력했다.

학위수여식에 이어 싱하이밍 대사는 "한중관계는 상생이 답이다"를 주제로 하는 특강을 하였다.

특강을 통해 싱하이밍 대사는 "군산대학교는 전북지역의 유명한 국립대학교로 오랜 역사와 전공을 갖추고 있



으며, 현재 북경이공대학교를 비롯한 62개 중국대학교와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며 한·중 교육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군산대학교와 함께 한·중 인문교류를 촉진하여 실제적인 협력을 실현하고, 한·중 우의를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다. 한중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하는 것이 양국 이익에 도움이 된

/군산=이재춘 기자

다"고 말했다.

또한 싱 하이밍 대사는 한중 수교 30년의 성과와 중국의 발전 현황, 한중 관계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 미래에 대한 기대를 설명하며, "유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학업·생활·진로 및 취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에 노력을 다하는 군산대 관계자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익산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익산시 장애인 연합회는 19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현을 시장과 최종오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을 비롯한 내빈들과 장애인 및 가족 500여 명이 참여해 사회통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기념식은 유공자 포상 장애인 인권현장 낭독,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어려운 여건에도 남다른 재할 의지로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한 장애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을 시상식에서는 30여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기념행사를 장식한 축하 공연과 노래자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병현 익산시 장애인 연합회 회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올바른 장애인 인식을 갖고, 장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시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자봉센터·전북디자인센터, 브랜드 제작 협약

익산시는 시민이 만들어 가는 자원봉사 으뜸도시' 브랜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민의 차별화된 자원봉사 브랜드를 만들어 대한민국 자원봉사 선도 도시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염양섭)와 전북디자인센터(센터장 남궁재학)가 자원봉사 으뜸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일 브랜드 제작에 나섰다.

두 기관은 익산시 자원봉사 브랜드

개발을 위한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 지식·기술·정보의 교류 및 수행 △브랜드 개발을 통한 디자인 인식 확산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는 지난 12월 익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때 자원봉사 으뜸도시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익산시민의 봉사정신을 담은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두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새만금신항 경기대회 행사 전반 논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18일 군산새만금신항 경기대회 준비위원회 김중호 위원장과 문화관광국장 등 집행부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군산새만금신항 경기대회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행사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군산새만금신항 경기대회'는 시민의 건강과 더불어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의지를 결집, 표출하기 위한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재)군산시경기연맹(회장 김경이)이 개최하는 행사다.

2023 군산새만금신항 경기대회는 군산새만금신항만이 조망되는 야미도항~신시광장으로 코스가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 규모는 2,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 날 행사에는 워터쇼, 해상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학교' 수료식 개최

군산시가 내실 있는 시간여행축제 준비를 위해 축제활동가 양성프로그램인 '시간여행축제 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시는 지난 18일 오후 열렸던 이번 축제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시간여행축제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축제학교는 군산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를 지속 가능한 주민중심의 축제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에서 주최하고 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 운영해온 프로젝트다.

지난 3월 14일부터 매주 1회씩 6주동안 교육이 이뤄졌으며, 이번에 30명의 수료자는 축제 리더 인증서를 수여받고 시민축제 자원위원과 시민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가 축제학교 등 민주주의의 축제추진 기반을 토대로 콘텐츠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최근 대한민국 축제비타협회에서 콘텐츠부문 최우수상도 수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